

주일의말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너무나 간명하게 가르쳐 주는 이 말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현대의 복음 선포’라는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삶을 통하여 보여 주신 복음 선포의 모범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하신 명령에 따라,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귀족이나 왕족, 법률학자, 부자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과부, 세리, 어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아나뵃)에게 복음을 선포 하셨습니다. 교회는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의 모범과 전통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 되어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가정의 해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이들이 꾸린 다문화 가정,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사상과 체제 속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온 새터민들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30만 4천 9백 32쌍이 결혼했고, 16만 7천 96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이혼 건수가 결혼 건수의 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혼으로 인해 이혼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과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 이후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하여 해마다 다문화가정이 3만 건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새터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우리나라에 왔지만 사회의 편견과, 체제와 사상 그리고 문화가 다른 데 따른 부적응으로 인하여 과반수의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함께 짊어질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입으로만 기도하고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새로운 모습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받은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말씀

바리새사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루카18,14

집회 35,15L-17,20-22L 2티모 4,6-8,16-18 루카 18,9-14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2010년 전교주일 담화문(요약)
(2010년 10월 24일)

교회의 친교는 선교의 열쇠입니다

전 교주일을 거행하는 10월은 하느님 백성이 복음 선포 노력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과 더욱 일치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우리가 지닌 희망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에게서 배우고, 아버지 사랑의 계획을 묵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도록 촉구하십니다. 성자께서는 하느님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월은 우리가 투신해야 할 과업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의 의무는 복음 선포이며,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인종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표징을 보여 주고, 지구를 모든 민족들의 집으로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기에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선교 사명은 개인과 공동체와 목자의 깊은 회개 없이 완수될 수 없습니다.

선교 사명 의식은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와 본당 공동체가 선교 협력에 참여하여 모든 인간, 민족, 문화, 인종, 국가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촉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은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입니다. 교회의 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서 친교를 맺으시고, 하느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를 바탕으로 친교를 이룹니다. 성체성사는 교회 생활의 원천과 정점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정한 성찬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교주일에 우리 모두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주인공이 되어 복음을 선포합시다. 선교 열정은 언제나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어 왔습니다. 모든 이가 신생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형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을 권유합니다. 교황청 전교 기구의 소중한 봉사를 통한 이러한 사랑과 나눔의 활동이 오지 선교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신생 교회 공동체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며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증언하는 선교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예” 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면 새롭게 교회의 모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으로 모든 이가 하느님의 계획을 깨닫고 희망 속에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2010년 2월 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더욱 많이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30주일
전교 주일

입당성가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화답송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
이다.

파견성가

451 주께 나아가리다

영성의 향기

:: 아버지 마음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쉽게 폭력을 쓰듯이 하느님께서도 폭력을 쓰시고 앙갚음하신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느님의 이미지를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겨 온 탓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선입관 때문에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는 하느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또 가난한 이들을 감싸 주시는 하느님, 사랑이 넘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는 하느님에 대해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착한 사람에게는나 악한 사람에게는나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수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알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시는 분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다섯 손가락의 용기



다섯 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여 갖은 상을 휩쓸고 '피아노 신동'으로 불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스무 살 때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요 지휘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한창 명성을 쌓아가던 중 오른손 셋째와 넷째 손가락의 신경이 마비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할 법도 하였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겐 아직 왼손이 있다.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 피나는 노력 끝에 재기한 그의 연주는 양손이 멀쩡한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울 소사라는 이름의 이 피아니스트는 지금도 공연 때마다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사고 전의 연주는 타고난 재능 덕을 많이 본 것이지만, 지금의 연주는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재주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 율거은 글입니다 -

★ 모임 / 행사 ★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 일시: 10.25(월) 20:30, 요안나미용학원
-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대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 설명회(2차)

- 일시: 11.9(화) 19:00
- 장소: 대건고등학교 대건관
- 대상: 중3 학부모 및 학생
- 문의: 대건고등학교 631-9681

제2회 성경암송발표대회

- (2011년 100주년 기념 축제 예선)
- 일시: 11.20(토), 21(일) 13:00~17:00
-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 문의: 성서사도직 담당 250-3082

세계 청년 대회 참가 신청

- 일시: 2011.8.11(목)~24(수)
- 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 신청마감: 12.31(금)
- http://club.cyworld.com/2011wyd

★ 모집 / 교육 ★

ORPT 부모교육 마음편 개강

- 일시: 11.1~12.20(월) 8회기
- 에니어그램1단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일시: 11.6(토)~27(토) 4회기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2차 모집: 10.25(월)~11.30(화)
- 입시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 ※ 대학홈페이지(http://www.csj.ac.kr) 참조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 창작작가: 11.1(월) 10:00
- 오키나와: 11.1(월) 13:00
- 하모니카: 11.3(수) 13:00
- 제대&꽃꽂이: 11.5(금) 10:30
- 문의 및 신청: 254-6115

제16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 일시: 11.6(토) 15:00~21:00 매주토(6주간)
-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강당
-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면 누구나 가능
- 신청마감: 11.2(화) 17:00까지
- 신청문의: 641-5678

가톨릭근로사회관 필리핀영어캠프

- 일시: 2011.1.2(일)~31(월)
- 장소: 마닐라 St. Joseph College
- 대상: 초3~중3(20명, 선착순)
- 특징: 현지초등선생님직접수업
- 문의: 253-1313 / 010-9355-5843

제16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 동계 청소년 필리핀 영어연수
- 기간: 1.2(일)~2.12(토) 6주/405만원
- 대상: 초4~중3(35명, 선착순모집)
- 기타: 설명회개회-11.13(토)15:00
- 문의: 656-6655(ARS4)

성바오로안나의집 어르신 모집

- 입소대상: 80세 이하의 어르신으로서
- 신변자립이 가능한 노인(여성)
- 입소비용: 생활비 월44만원(보증금5백만원)
- 입소구분 1인1실 / 2인1실
- 문의 054382-1634

★ 직원 채용 ★

월명성모의집(김천) 직원 모집

- 모집분야: 간호사, 요양보호사
- 문의: 054)435-5579(인사담당)

★ 안내 ★

위령의 날 버스운행(교구청 군위묘역) 안내

- 일시: 11.2(화) 09:00 교구청내 대건출판사앞 주차장출발
- 운임료: 왕복 1인당 1만원(선착순 마감)
- 예매기간: 10.25(월)~29(금), 준비물:미사도구,도시락
- 문의: 교구청 관리과 250-3003(전화예매불가)

※군위성당 자모회 국립판매합니다(금액:3천원)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홍순걸(요셉),이일근, 김영호(마태오),안연옥(임마누엘라)

오순절평화의 마을 후원회미사

- 일시: 10.25(월) 11:00
- 장소: 고산성당
- 내용: 고해성사,미사,안수
- 문의: 051)782-076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02)764-4741~3 http://www.성가정입양원.com

2011년 대구주보 광고 접수안내

- 일시: 11.8(월) 09:00, 교구청별관 1층 대화합실
- 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 2.교적사본
- 3.분당신부님추천서 4.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회 국장신부님 추천서 5.광고문안
- 광고료 1회 12만원, 대축일 15만원(전액 선금)
- 참조: 사업주가 냉담자이거나 교구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광고는 게재 불가

교구청 전교구구 한국지부

교구청 전교구구에는 가난한 나라의 사제들을 양성하는 베드로사도회, 선교사들을 돕는 전교회, 어린이들을 돕는 어린이 모임인 어린이전교회, 성직자·수도자들의 모임인 전교연맹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물질적, 영적 궁핍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 지역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형제적 사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년 전교주일에 헌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기도와 후원으로 세계 선교에 함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2)2268-7103 •E-mail: pmsk@pmsk.net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0월 25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6일(화) 오후2시	성 모 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5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바논의 성모 기도회 미사	10월 28일(목) 오후 2시	성 모 당
군중후원회 미사	10월 25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공소후원회 미사	10월 30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미소인치과

원 장 이 종 현 (프란치스코)
송 선 희 (안 나)
범여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여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 · 목 ▶ 야간 진료)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 (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엔타

수익금 전액의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청과, 야채, 선어, 정육
*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 일 (그라산도신부)

노동부 지정
푸텍스 요리직업 전문학교

국비지원(계좌제)
취업반 창업반 자격증반
위치 ▶ 지하철 큰고개역 1번출구
원장 김 경 희 스테파니아
Tel : 053)953-9800

강북 행복을 주는 치과
Happy Dental Clinic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트럴
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323-2875
원장:고상철(베드로), 조진석

달성피부과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탈모
2F 여드름,흉터 3F 비만,미용수술
손 제 정 다미아노
김 인 주 레이저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 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내당역 3번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T.652-0119 / 이시우(요한)

가정,사무실,관광지,해외,이사전문

로젠이사
(대구본부)
전국화물용달취급 대표:서 정 원 (프란치스코)
www.logen2424.co.kr
T.754-6688 H.P.010-9516-5511